

광양시, 비효율적 규제 개혁 적극 나선다

시민 신고센터·개혁 TF팀 신설 운영

중기 3불 해소 등 6대 분야 중점 발굴

광양시가 정부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속조치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저해하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광양시는 지난 1일자로

협) 해소 및 지원 ▲기업투자 여건개선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소상공인 육성 ▲농·수산업 활성화 ▲시민 생활안정 등 6대 분야를 선정, 규제 개혁을 중점 발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1단계로 이달 말까지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정없이 민원서류 간소화 등 쉬운 것부터 개선해 나가고, 2단계로 6월말까지 시가 재정한 조례나 규칙의 규제사항을

발굴 등록하며, 3단계로 법령 등에서 규제한 내용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규제를 신설할 경우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동일비용 규제감축(cost-in·cost-out)과 올해 경제규제 10% 절감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규제 신설시 네거티브, 일몰원칙 등을 적용하고 미등록 규제도 발굴 등록해 관

리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민원인, 기업인, 소상공인 등과 관련 규제개혁(완화 및 폐지)을 위해 다방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사업

구례 매천도서관 또 선정

구례군 매천 도서관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공모 사업인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매천 도서관은 10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엘립 다문화쉼터에서 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이 찾아가는 다문화 책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족 상호간의 서로 다른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알게워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천도서관 관계자는 “지역에 결혼이주여성이 들어남에 따라 다문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며 “그림책 읽고 나누기와 독후활동(북 아트) 및 인형극단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061-780-2659) /구례=이성구기자 lsg@



여수 벼룩시장 성황

여수 시민들이 최근 거북선 공원에서 열린 벼룩시장을 찾아 책 등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벼룩시장에는 시민 70여명과 7개 단체가 판매자로 참여해 의류·도서·장난감·악세사리·잡화 등 1900여 점의 물건을 가져와 1460여점(시가 388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여수시 제공〉



광양 경찰, 학교폭력 예방 팔 걷었다

광양고 학생 대상 교육

광양 경찰서(서장 장효식)이 관내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발벗고 나섰다.

장효식 서장은 지난 5일 광양고등학교 재학생 48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장 서장은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과 꿈을 위한 열정을 갖도록 강조했다. 특히 전남경찰청 홍보단의 안무와 노래,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연극

을 무대에 올려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문화를 접목한 교육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공감을 얻었다.

한 학생은 “지루할 것 같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이렇게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장효식 서장은 “바쁜 생각이 행동을 지배한다”며 “학생들이 올바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하면 함께하는 친구가 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 축산농가 82억 우선 응자 지원

FTA 개방 등 부담 경감

연 1%, 2년거치 5년 상환

전남도는 올해 축산농가 응자 지원액 18호 67억원, 운영자금이 8호 15억원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생산부분 10호 14억원, 가공부분 10호 37억원, 유통부분 5호 28억원, 판매부분 1호 3억원이다. 올해 지원액 중 나머지 98억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오는 6월에 응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조례를 제정, 녹색축산 육성기금 100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친환경축산물 생산 가공·유통·판매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해 친환경 인증 및

HACCP(위해요소 종합관리기준) 지점을 받은 농가 중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시설자금이 18호 67억원, 운영자금이 8호 15억원이다.

지원 분야별로는 생산부분 10호 14억원, 가공부분 10호 37억원, 유통부분 5호 28억원, 판매부분 1호 3억원이다. 올해 지원액 중 나머지 98억원은 추가 신청을 받아 오는 6월에 응자 지원할 예정이다.

시설자금 응자 한도는 축산농가 2억~5억원, 법인 8억원, 유통·판매업체는 10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 응자 한도는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유통업체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 녹동농협, 조직장 한마음 대회

고흥 녹동농협(조합장 양수원)은 최근 도양읍 복합체육관에서 임직원과 대의원, 영농회장, 부녀회장, 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모임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직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조직장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심신 단련을 통해 농협과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행

사는 명랑 운동회를 비롯해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양수원 조합장은 “투명한 경영과 원활한 소통으로 조합원과 함께 성장하는 녹동농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형형색색 300만송이 튤립 대향연”

18~27일 신안 임자도 대광해변 일원서 축제

새우란 전시회·馬상 조형물 등 볼거리 다양



전국 최대 규모의 튤립 단일 꽃 축제인 제7회 신안 튤립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신안군 임자도 대광해변 일원에서 개최된다.

‘바다와 모래 그리고 300만 송이 튤립의 대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100여 품종·형형색색 300만 송이의 튤립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축제는 공식행사, 문화 및 체험행사로 나눠진다.

튤립 축제장은 튤립 공원(6만 8000㎡)과 송립원(5만 2000㎡)에 튤립광장, 튤립원, 구근원(알뿌리), 토피어리원, 유리온실, 품종 전시포(100종), 수변 정원, 동물농장, 해송 소나무 숲길 등 다양한 테마로 구분해 꾸며진다.

유리온실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다육식물과 아열대 식물을 볼 수 있고, 카페테리아에서는 ‘신안 새우란 전시회’가 열려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에는 실제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 넘치는 실족 사이즈의 마(馬)상 조형물과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의 거리’, 튤립꽃&나비 조형물, 풍차 전망대, 튤립 파라솔, 유리 튤립동산 등 각종 조형물이 세워진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

www.guemyong.co.kr

NAVER 경영창조 충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충전하세요

InstaLay[®]

충간소음 전용 바닥재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충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뛰어난 열전도성, 충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주택시공기준

수인한도기준

경량충격을 58dB이하

중량충격을 50dB이하

40dB이하

35dB이하

SGS

UKAS

SGS

UKAS

전국 시·군·구자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



(주)금용건설